



P2-P7 / 칼럼

이번 호 칼럼에는 세월호 특집으로 김동춘 연구위원과 김근주 학술부원장, 유희창 연구생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P9 / 느헤미야 소식

새로 나온 책과 3, 4월의 활동들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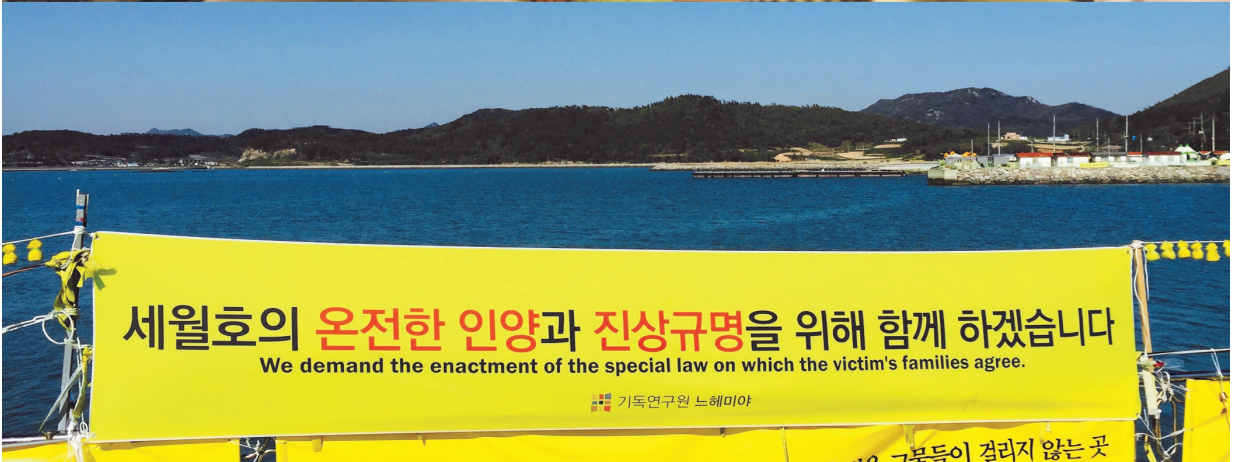
P11 / 재정보고/기도제목

지난달 느헤미야의 살림살이 보고와 기도해주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뉴스레터

느헤미야

2015년 4월호(통권 2호)



교수칼럼

세월호를 향한 회심의 길

>> 김동춘 연구위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성경공부, 큐티, 기도에 힘쓰며, 내면질서의 평안과 영적 경건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앞에 공분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항의하며 시청·광화문에 운집하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두 그리스도인 모두 '같은 주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같은 성경'을 읽으며,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신앙인들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반된 신앙의 길을 걸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신앙 성향의 차이일까? 아니면 신앙 본질의 차이일까? 세월호에 무관심하고, 개인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그들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눅18:22) 부자 관원같은 신앙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창조질서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종차별을 적극 옹호하거나, 불의한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성전(聖戰)이라 외치면서, 전쟁승리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대부분 모범적인 신자들이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견해는 신앙 색깔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 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발의된 벨하신앙고백서(Belhar Confession)는 인종차별정책을 '복음 진리가 위협받는 신앙고백적 상태'이며, '인종차별은 이단(heresy)이다'라고까지 천명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세월호를 향한 정치적 회심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구원과 사적 경건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이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열까지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신앙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본질의 방향전환이며,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이며, 신앙차원에서 일어나는 회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회심이란 메타노이아(metanoia)로서 그 본뜻은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세월호를 향한 신앙인의 태도변화가 일어나려면, 신앙 내면에서 모종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단지 정치적 견해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차원의 회심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방향전환, 즉 회심은 값없는 은총을 덧입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Christ as Savior)와 주님(Christ as Lord)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이 회심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선사받는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옛 사람의 존재방식은 새 사람의 존재방식으로 전환되어, 삶의 가치와 방향에 일대 선회가 일어난다. 두 번째 회심은 선물로 주어진 은총이 급기야 값비싼 제자도의 삶을 요구함으로써, 값없는 은총이 댓가를 지불하는 은총이 되어, *선물로서 구원이 책임있는 삶의 과제*로 전환되는 회심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회심*에서 *윤리적 책임을 동반하는 회심*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윤리, 믿음과 행함 사이의 균열이 극복되어, 칭의와 성화가 만나는 총체적인 회심에 도달하는 과정이다(따라서 회심은 과정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그럴싸한 교리적 신앙으로 무장되었다 해도 그것이 세월호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아니다. 본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논리가 아닌 의지이며, 이성이 아닌 파토스(pathos)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여기서 '네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심* 이후 *인간을 향한 회심*이다. 이 회심은 신학적 회심과 대비되는 인간학적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구원 이기주의 신앙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의 회심*이다. 이 회심은 하나

님께 집중하는 눈길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는 회심이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초월신앙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내재신앙으로의 방향전환이며,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신앙에서 나와 이웃의 수평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신앙이며, 경직된 신본주의 신자에서 따뜻한 인본주의 신자(humanistic christian)로 변환됨을 말한다. 이는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신적 현실이 인간 현실과 접촉하여, 두 현실이 결합함으로써 인간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냈듯이, 우리의 하나님 신앙이 인간적 차원을 품어내는 방향으로 이월(移越)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처럼, 인간과 이웃 안에서, 그리고 이웃이 처한 현실 안에서 만나야 한다. 또한 인간학적 회심은 이웃됨의 회심이다. 그것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과 발길을 돌이키는 방향전환을 말한다. 이것은 강도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어 주었던 사마리아인에게서 발견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학적 차원의 회심에 머물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학적 차원이 결여된 그들의 신앙은 그 자체가 무신론적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관습

“ 이제 우리는 회심의 신학적 차원과 인간학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회심을 생각해야 한다. ”

적으로 고백했지만, 고난당한 이웃 앞에 무감정(無感情)으로 반응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에 비해, 사실상 무신론자이거나, 타종교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베푼 것만도 못한 것이라고 성경 스스로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회심의 신학적 차원과 인간학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회심*을 생각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인간학적 차원을 넘어선다. 세월호 사건은 단지 슬픔 당한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는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의 문제로 신정론적으로 그려내기만 한다면, 세월호 사태는 신학적으로 미화될 소지가 있으며,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국가와 권력과 악의 상관성을 놓칠 수가 있다. '세월호 이후'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늘까지 국가라는 존재가 이토록 무정하며, 비인격적이며, 불의한 권력집단인가를 여실히 경험하게 되었다. TV로 생중계되는 화면 앞에 죽어가는 304명의 생명을 어이없이 낚 놓고 구경이나 했던, 이렇게 무능하고, 그토록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국가가 어디 있으며, 오늘까지도

시종여일 눈가림, 속임수, 철면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그 국가는 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었다. 이 사악한 권력집단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유가족의 손을 맞잡고 위로해 주었던 적이 있었는가? 세월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회심이 있다면, 국가 안에 내재된 가공할만한 초인격적인 악의 힘을 예의 주시하면서, 권력의 막후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저 불의한 권력들을 향해 냉철한 분노를 던지면서, 일종의 대항권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와 권력의 회심- 그것은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공동선을 발휘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조악에 대한 회심*까지 생각이 미치는 그 지점이 비로소 세월호를 향한 회심의 종착지가 될 것이다.



교수칼럼

진상 규명

>> 김근주 학술 부원장



열왕기상 21장은 포도원을 바꾸어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임금의 탐욕에 의해 죽임 당한 농부 나봇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희년법의 원칙을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농부가 있었고, 결국 그의 믿음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끝내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역설적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보통 실제의 현실은 이렇게 죽임 당한 억울한 농부 이야기에서 끝이 나지만, 열왕기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사건의 현장으로 보내신다. 나봇이 죽임 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어디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두 명의 불량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그가 죽임 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나쁜 놈은 이 두 명의 불량자들 이지 않은가. 아무리 권력이 부당하다 해도, 이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권력이야 어느 시대건 부당하기 일쑤이고,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닐테니, 우리가 찾아가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그 두 명의 불량자들 이지 않을까. 사실 우리네 교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그 불량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였고, 그러자 얼마 후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아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흔하기도 하다. 이

렇게 두 명의 거짓 증언자들이 밝혀지고 그들이 처벌을 받으면 이 사건, 나봇이 죽임당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것인가?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두 명의 불량자가 아니라, 이들의 증언을 듣고 나봇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장로들이 아니라, 북왕국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에게 보내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걸까? 나봇이 죽은 것이 아합때문인 것인가?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오니 아합로서는 참 편치 않은 노릇이다. 아예 예언자를 개무시하면 편하겠지만, 아합 역시 엘리야를 알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내 대적자”라고 부른다(왕상 21:20). 그만큼이나 엘리야가 사사건건 아합의 일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왕의 원수가 된 예언자-여기에는 여로보암을 향해 외친 아모스를 빼수 없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향해 외친 예레미야를 빼수 없다. 절대 권력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 대체 아합의 죄목은 무엇인가? 탐심? 살인교사? 그가 한 것이라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제대로 값을 치르고 사들이려 하였으나 농부가 거절하자 어찌지를 못한 채, 왕궁에 돌아와 밥도 먹지 않으며 공공댄 것뿐이지 않은가?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단죄는 명확하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왕상 21:19). 아합은 결코 살인하지 않았고 나봇을 죽일 계획 수립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향해 살인과 도적질의 죄악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신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절차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절차의 정당성이 정당함을 보장하지 못하며, 형식적 무죄가 무죄를 입증하지도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아합의 유죄를 입증할 길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법, 예언자의 법은 나봇이 무죄이며 아합은 살인자요 도적임을 폭로한다. 나봇과 같은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예언자들인 것이다. 예언자들은 형식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면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이다.


어찌 이것이 그 때 그 시절만의 이야기이라.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많은 이들은 진상조사를 촉구하여 작년부터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소리 높였다. 우리 정부는 한사코 유가족들과 뜻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체 하더니, 겨우겨우 특별법을 울며 겨자먹기로 만들더니 말도 안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그야말로 유명무실에 적반하장격으로 바꾸어 버렸다. 사실 정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은 왜 진상 규명이 필요한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재판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유병언을 그토록 뒤쫓고 구원파에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 그 진상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나봇을 모함하고 죽게 한 두 명의 불량자일 뿐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 많은 배가 문제 없이 그 동안 운항이

“ 나뭇 살해 사건의 진상은 두 명의 불량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찾아가 살인자요 도적이라 규탄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

되었던 건지, 왜 그 동안 정부 기관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인지, 왜 며칠 동안에 걸쳐 세계 10위권이라는 국가의 인명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참상을 지켜보기만 했는지, 그 긴박하던 순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수도 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왜 하나같이 오보와 거짓을 일삼았던 것인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합을 가리켜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왕상 21:20, 25), 여호와께서 쫓아 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왕상 21:26) 행하였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아합의 최악은 단지 가난한 자를 약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아 버린 것이며, 우상에게 복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심히 거역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던 바였다.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이번 처럼 권세 가진 이들이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짓밟는 일들이 빈번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 내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얻게 하셨는데,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

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가난한 자에 대한 약탈과 짓밟음, 부당한 권력 행사와 그에 결탁한 종교로 나타난다. 법과 사람을 동원하여 농부의 땅을 빼앗아 버린 것, 땅의 유업권을 부정해 버린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권력에 의해 농부의 포도원이 빼앗긴 이 사건이 성경에 실려 있는 이유일 것이다. 권력이 약자를 짓밟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흔한 권력형 부패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이다. 나뭇이 죽임 당한 사건이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은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죽임 당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단지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뭇 살해 사건의 진상은 두 명의 불량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찾아가 살인자요 도적이라 규탄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역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진상 규명이며, 그 진상은 단지 선장과 선원의 문제일 수 없다. 만일 엘리야가 오늘 살아 있다면 그는 누구를 찾아 갈까? 그 날, 4월 16일날,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리무중인 우리 대통령은 이 이야기에서 누구 역할일까? 



느헤미안


● 답을 찾아 온 곳에서 ● 만난 사람들

>> 유희창 목회학 연구과정 2년

저는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의 제1기 목회학연구생입니다. 원래의 직업은 한 캠퍼스 선교단체의 간사였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팟캐스트 <에고 에이미>의 영향이 컸습니다. 2008년 6월 10일, '촛불대행진'을 통해 처음 갖게 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선배 간사들은 불필요한 것처럼 치부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상황과 성경을 아우르는 그럴싸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해소되지 못한 갈급한 심령이 되었지요. 그래서 듣게 된 것이 팟캐스트 <에고 에이미>입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이 분들이 신학교를 연다면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선교사를 사임하던 2014년에 목회학과정이 신설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의 한수"라 생각하고 입학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저는 교수님들의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문은 날카롭게! 사랑은 뜨겁게! 교수님들은 온몸으로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게 더 좋은 것은 바로 학우들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라는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신존재증명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 하나님 나라, 여성

목사 안수, 폭력과 비폭력, 밀양, 강정마을, 세월호 등 신학과 정치, 사회, 경제를 넘나드는 활발한 토론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학우들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4월 14일, 16일, 그리고 18일. 힘없이 아파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향해 저희 학우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일에는 몇몇 학우들이 팽목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머리에서 하는 신학은 저희에게는 죽은 신학입니다. 교수님들은 신학을 가르치시면서 저희를 현장으로 내뭍니다. 저희는 신학을 배우면서 항상 현장에 목마릅니다. 저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제2의 '고백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과 더불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고, 구원의 선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잘못할 때마다 언제라도 날카롭게 비판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소식

채플

매주 수요일 채플이 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설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강호(개척자들), 강경민(일산은혜교회/이사장), 이헌주(너머서교회/교회2.0 총무), 최철호(아름다운마을공동체), 박천웅(안산이주민센터), 이재학(하늘땅교회)

신학연구과정 1학년 MT

3/13-14 서초 복음자리교회에서 신학연구과정 1학년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귀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개혁을 위한 포럼(1차)

3/20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뉴스앤조이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연중 포럼'을 기획하였고, 그 첫 번째로 '목사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김근주, 김동춘, 조석민 연구위원이,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는 김애희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발제문은 곧 책으로 엮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2차 포럼은 6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느헤미야 일정

5/15, 6/12

화롯불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6/15

한국교회개혁을 위한 포럼
 '영화<퀴바디스에 답하다>' 2차
 -한국 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권연경, 배덕만, 김형원, 표성중)

화롯불 모임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입문, 심화반 졸업생들이 독서토론으로 모이는 화롯불 모임이 있습니다. 4월에는 <구뎨씨의 행복여행>으로 독서모임을 했습니다.

권연경 연구위원 북 세미나

3/30 권연경 연구위원이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일상, 부활을 살다>(복있는 사람) 북 세미나가 느헤미야에서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기독교인 연합예배

4/14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기독교인 연합예배에 느헤미야 식구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4/25** 팽목항에서 열린 '실종자가족과 함께한 팽목항 기도회'에 함께했습니다.

Reading Week(독서주간) 실시

4/22~24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과정을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6/8, 6/22

신학특강

종강일정

5월 21일, 26일 기독교학입문과정
 6월 9일-11일 목회학/기독교학연구과정
 6월 16일 기독교학심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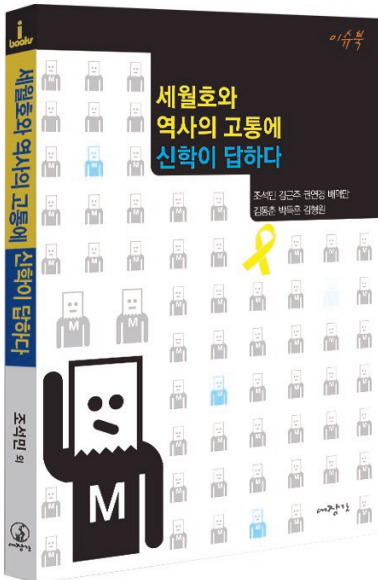
느헤미야 책 소개 : 이슈북



[신간]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느헤미야 연구위원들이 함께 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 율법이나, 복음이나?>가 대장간에 서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인가?', '구약의 안식일 규정이 주일로 그대로 연결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가?'... -머리말 중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 (2014년 출판)

세월호 참사는 한국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또한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발언 등으로 역사의 고통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도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의 연구위원들이 전공별로 이 문제를 살펴본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고통의 현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후원동역자와 재정보고 / 2015년 2, 3월

개인후원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선희, 강성태, 강신하, 강인성, 강현길, 강화춘, 고미혜, 고윤일, 고재광, 고재현, 공경표, 공영찬, 광명화, 구자옥, 권경욱, 권두현, 권명재, 권민영, 권민정, 권성호, 권세윤, 권현아, 권현진, 기호용, 김경모, 김규동, 김근주, 김기범, 김난희, 김대연, 김대원, 김덕, 김동훈, 김래산, 김미정, 김민수, 김봉례, 김상열, 김상욱, 김석원, 김석주, 김선, 김선호, 김성열, 김성학, 김소희, 김수정, 김신한, 김아름, 김아주, 김양현, 김영진1, 김영진2, 김옥경, 김유성, 김인성, 김재신, 김정은, 김종욱, 김주석, 김준수, 김준혁, 김지용, 김지인, 김진, 김진우, 김진협, 김진희, 김철취, 김태열, 김태윤, 김태환, 김하양, 김한나, 김현정, 김현주, 김형규, 김휘영, 나정수, 나종삼, 남백희, 남상윤, 남오성, 남태일, 노성은, 노혜미, 노활석, 동방호현, 문혜진, 문호빈, 민은경, 민은주, 박국이, 박기웅, 박민균, 박병만, 박상백, 박성민, 박성준, 박소영, 박애영, 박연주, 박영혜, 박재익, 박정숙, 박중순, 박진일, 박진호, 박혜원, 방성희, 방필연, 배명성, 배소연, 배운기, 배태우, 배한나, 백민정, 변성진, 변은혜, 서미영, 서연자, 서주희, 석은진, 성경식, 성시윤, 손주환, 송경근, 송아진, 송은진, 송인수, 송창달, 송현미, 송효진, 신선영, 신소용, 신주현, 신지호, 안경숙, 안병열, 안재영, 여신애, 오세민, 오수경, 오숙현, 오주희, 오지현, 오혜경, 왕정수, 우승정, 유가을, 유경원, 유명중, 유병욱, 유솔, 유수경, 유슬기, 유명백, 유명성, 유욱, 유주환(정수원), 유태완, 유희창, 윤기석, 윤기원, 윤수일, 윤혁택, 윤희정, 이경하, 이규범, 이길승, 이동주, 이두성, 이로운, 이명희, 이미순, 이미영, 이방욱, 이병선, 이병욱, 이병훈, 이상진, 이상호, 이선택, 이세순, 이수미,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순조, 이승민, 이양천, 이연우, 이완수, 이원근, 이은재, 이일수, 이장은, 이재은,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주, 이주연,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진숙, 이진현, 이창선, 이한일, 이행구, 이향숙, 이현창, 이형석, 이희석, 임석환, 임종화, 임철호, 임혜진, 장건세, 장상순, 장은선, 장의신, 장인숙, 장재규, 장재원,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미미, 전성현, 전세훈, 전재윤, 전주환, 정국진, 정명숙, 정석구, 정영희, 정원순, 정은주(정복순), 정이랑, 정재기, 정재도, 정재훈, 정지영, 정지훈, 정진희, 정찬형, 정철규, 정택인, 정혁구, 정혜경, 정희진, 정희원, 조경원, 조기행, 조순례, 조영민, 조원규, 조은아, 지성학, 진실애, 차미나, 차정호, 채미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최경진, 최동국, 최미근,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순남, 최영상, 최영희, 최용주, 최윤호, 최은주,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진영, 최현복, 최혜영, 최황덕, 하태권, 한나영, 한명석, 한명호, 한부홍, 한상은, 한승환, 한은혜, 한인희(유태호), 한지일, 한혜원, 함봉식, 허상영(조은연), 허성호, 허진석, 허환구, 홍인경, 황가영, 황준영, 황혜정

연구위원 후원

권연경, 김인철, 안상욱, 조상우

교회 및 단체후원

㈜소영로지스틱스, 100주년기념교회, 개포동교회, 나들목교회, 산울교회, 삼일교회, 새맘교회, 서울영동교회, 송인수가정교회,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사랑교회, 찾는이광명교회, 한그루교회

장학후원

무명

목적후원

이유진(사무보조후원)

특정목적후원

㈜ 단유필름(포럼후원)

운영성과

계정과목	2월	3월
사업수익	40,420,014	17,896,600
후원금	23,160,000	11,180,000
일반후원금	11,410,000	9,840,000
특정후원금	11,750,000	1,340,000
사업수입	17,260,000	6,716,600
수강료수입	16,880,000	5,100,000
사업수입	380,000	1,616,600
기타수입	14	0
기타수입	14	0
사업비용	17,260,825	17,751,440
사업운영비	5,380,092	6,583,620
사업인건비	4,400,000	5,150,000
사업진행비	556,092	896,920
사업홍보비	424,000	536,700
관리운영비	11,880,733	11,167,820
인건비	4,547,630	3,587,940
사무관리비	7,333,103	7,579,880
당기순자산의 증(감)	23,159,189	145,160

재무상태

계정과목	금액
자산	
유동자산	40,039,793
당좌자산	40,039,793
비유동자산	59,213,450
투자자산	3,600,000
유형자산	35,613,450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
자산총계	99,253,243
부채	
유동부채	0
부채총계	0
순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97,808,243
잉여차액	97,808,243
당기차액	37,831,847
순자산총계	99,253,243
부채와순자산총계	99,253,243

기도와 동역

1. 느헤미야 전임교수 충원을 위한 300명의 후원자 찾기 프로젝트

올해 우리들의 전임교수 2분 충원을 위한 재정마련을 시작합니다. 5월 중 신규로 새로 정기 후원신청 하는 분이나 기존 정기후원자중 증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느헤미야 이슈북 중 한 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신학연구과정의 밥상공동체 시작

4월 마지막주 부터 점심시간에 밥상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쌀이나 부식 등을 후원해주 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3. 카페바인 살리기 동참

복음주의 활동가들이 만든 카페바인에서 느헤미야 학생들에게는 조합원가로 커피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카페바인이 살아나도록 기도해봅니다. 우리 후원자님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용해주세요.

뉴스레터 느헤미야

발행인 김형원

편집인 고상환

편집부 곽명화 배한나

발행일 201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H.www.nics.or.kr

P.070-8260-0208

F.02-323-0208

E.nics@nics.or.kr

후원방법

<정기후원>

www.nics.or.kr/funding에서
자동이체후원 신청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KRSEXXX

국민 822401-04-042816